

## 中都市 居住者の 家庭行事에 대한 研究 - 거행 여부, 장소와 공간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Performance and the Space Use of Family Events

장상옥\*  
Jang, Sang-Ock

신경주\*\*  
Shin, Kyung-Joo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level of family events, the events places where the events occur. The subjects of 169 households were selected in Jinju city and data were gathered through a questionnaire method.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SPSS package program.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Most of the families perform the majority of events except Ipchun (the first day of spring), the Vernal Equinox Day, the Autumnal Equinox Day, the Vega festival Day, Chilsuk, and the Respect-for-the-Aged Day. 2) Birthday parties score to the highest of all family events. 3) In general, the Lunar New Year's Day, the Full Moon Harvest Day, the ancestor worship ceremony, the 15th of January (in lunar calendar), the feast of a hundred day-old baby among lifetime ceremonies, family members' birthdays, housewarming parties among the other general celebrations, and Parents Day among memorial days are held in their homes. 4) The socialized celebration of the following family events is increasing: the first birthday party, banquets for parents' 60th birthday, Christmas, and wedding anniversaries.

Keywords: Family Events, Event Place, Space Use of Family Events

#### 1.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주택이란 가족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장소로 각종 가족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가족 생활은 크게 일상적인 생활과 비 일상적인 생활로 분류해 볼 수 있겠는데 일상적인 생활이란 하루 세끼 식사와 청소, 세탁, 취침, 공부, 휴식 등의 생활을 일컬으며, 비 일상적인 생활이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 왔던 연중 행사와 인생의례 등의 생활을 말한다. 이러한 일상 및 비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사회 문화적인 환경요인, 경제적인 환경요인, 주택의 구조, 인간의 가치관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되고 있는데, 특히 비 일상적인 생

활에 속하는 전통적인 행사, 인생의례, 탄생일 등의 영향도 예견되고 있다. 즉, 전통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 일상적인 가정행사가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나, 현대사회에서는 행사의 일부가 '집밖'에서 거행되는 사회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종 가정생활 중 비 일상적인 생활에 해당하는 가정행사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가정행사가 현 시점에서 거행되고 있는지, 거행된다면 그 장소가 어디인지, 집안에서 거행될 경우는 거행 공간이 어디인지의 파악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주거계획 시 비 일상적인 가정행사 공간에 대한 방향제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외부에서 이루어질 가정행사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겠고, 가족입장에서는 비 일상적인 행사 계획 시 세대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희원, 경상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 정희원, 한양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교수

- 1) 비 일상적인 가정행사 중 현재 거행되고 있는 행사와 그 거행 정도를 알아본다.
- 2) 비 일상적인 가정행사 중 현재 거행되고 있는 행사장소를 알아본다.
- 3) 비 일상적인 가정행사 중 현재 가정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우 그 공간을 알아본다.

## 2. 용어 정의

가정행사란 백과사전(2002)에 의하면 가족성원의 탄생을 비롯하여, 성장에 따라서 행하는 인사(人事: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 국어사전, 2000)에 대한 의례와 연중행사로써 각 가정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행사를 의미한다. 사전적 정의에 준하여 본 연구에서의 가정행사는 탄생에 관계되는 백일, 돌, 환갑, 교회, 자녀, 부부, 부모님의 생일 등을 포함시켰다. 또 연중행사는 상류계급에서 유래한 것과 서민의 생활행사가 합쳐져서 근세이후 일반 가정행사로 된 것으로 설, 대보름, 추석, 동지 등이 속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에 준하였다.

이외에 인사(人事)에 대한 의례와 함께 사회변화로 행하게 된 입학, 졸업, 어린이날 등의 축하 및 기념일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가정행사에 대한 내용 분류<sup>1)</sup>는 <표 1>과 같다.

## II.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설문지법에 의했으며, 조사대상은 중도시 규모인 진주시<sup>2)</sup> 거주자로 대학생 자녀를 가진 가정으로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가족생활 주기 상 다양한 가정행사를 대부분 경험하였을 단계이므로 본 조사의 연구 목적에 적합

1) 가정행사 분류는 선행연구(宮崎祐子, 1993)에서의 전통적 행사(정월, 칠석, 추석 등), 인생의례(성인의 날, 교회 등), -날(어린이날, 경로의 날 등), 탄생일(부모생일, 자녀생일 등), 축하행사(입학, 졸업축하 등), 서양적 행사(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할로윈데이 등) 분류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여 분류하였다. 허성미와 한계숙(1993)은 전통적 행사에 칠석과 석가탄신일을 포함하여 이에 준하였다.  
2) 진주 시는 경남의 남서쪽에 위치하며, 인구 340,669명의 역사, 문화, 교육의 도시(통계청, 2000; 진주시 시정현황자료, 2000)로 인구 규모 상 중도시에 속하며, 연구자의 연구지로 편의상 선택하였다. 중도시 선택이유는 우리나라의 가정행사 파악을 위한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대상 연구의 일환이다.

표 1. 가정행사의 분류

구분	가정행사의 종류
전통적 행사	신정, 구정, 대보름, 입춘, 춘·추분, 칠석, 추석, 제야(除夜), 제사, 석가탄신일
인생의례	백일, 돌, 성인식, 부부결혼기념일, 부부환갑·교회, 부모님 환갑·교회
탄생일	자녀생일, 부부생일, 부모님 생일
축하행사	자녀입학, 자녀졸업, 자녀취직, 승진, 퇴직, 상량식(주택 신축 전), 집들이(신축 후, 이사)
기념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경로의 날
기타 행사	크리스마스, 발렌타인 데이, 화이트 데이, 부활절

한 대상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 구성은 선행연구<sup>3)</sup>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예비 조사 등을 통하여 수정 보완하여 조사대상 가정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8문항(가족수, 가장연령, 주부연령, 만 자녀 연령 등), 주택특성 2문항(주택종류 거주면적), 친척과의 교류정도 2문항(부부 별도), 가정행사 거행에 대한 36문항, 가정행사 공간에 대한 의견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정행사 관련 문항은 거행여부, 거행장소(집, 외부, 행하지 않음), 집안에서 거행되는 행사에 대해서 거행공간(거실, 안방, 자녀방, 부엌·식당, 마당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시기는 2002년 3월과 4월로 총 2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부실 기재를 제외한 169부(77.3%)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7.5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백분율과 t-test 등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조사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 가정의 특성

####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가정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가족 수는 평균 4.4명이었는데, 3-4명이 59.2%, 5명 이상이 40.8%를 차지하였다<sup>4)</sup>. 가족유형은 핵가족이 84.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확대가족은 9.5%로 나타났다<sup>5)</sup>.

3) 逆田富美子, 宮崎祐子(1992)와 宮崎祐子(1993)의 연구  
4) 1995년 3인 가구 20.3%, 4인 가구 31.7%, 평균 가구원 수 3.3인(통계청, 2000, p.123)  
5) 통계청(2000)에 의하면 핵가족은 79.8%에 달한다.

조사 대상 남편과 주부의 평균 연령은 각각 51.8세와 48.4세이었다. 남편의 직업은 전문·사무직이 37.5%, 판매·서비스직 23.1%, 기타와 무직이 17.2%이었다. 한편, 남편의 학력은 고졸이 37.3%, 중졸이 33.1%, 대졸 이상이 29.6%이었고, 주부의 학력은 고졸이 44.4%, 중졸이 42.6%, 대졸 이상이 13%로 나타나<sup>6)</sup> 다소 고학력 가정이었다. 가정소득은 월 평균 2,811,243 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sup>7)</sup>의 소득 2,815,168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가정의 종교는 불교가 4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기독교 17.8%, 무교가 17.2%이었고, 그 외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을 조합하여 두 종교를 가진 가정이 약 10% 정도 있었다.

2) 주택 특성

조사대상 가정의 주택특성을 보면 주택유형은 공동주택이 55%, 단독주택이 44.4%로 진주시의 분포와 유사하였고, 거주면적은 30평 이하가 43.8%, 31-40평형이 36.7%, 41평 이상이 19.5%의 순으로<sup>8)</sup> 다소 주거 면적이 넓었다.

3) 친척과의 교류빈도

조사 대상가정의 친척과의 교류빈도를 보면 남편의 경우는 매월 1회 이상 교류한다고 4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개월에 1회 이상 교류한다고 26.1%, 매년 1, 2회 교류한다고 19.4%로 나타났다. 주부는 친척과의 교류정도가 매월 1회 이상 교류한다고 45%, 매년 1, 2회 교류한다고 23.7%, 3개월에 1회 이상 교류한다고 20.7%로 나타나 친척 교류정도에서 남편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위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조사대상 가정은 부부와 2~3인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으로 50대 초반의 가장은 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 등의 직업에 종사하며, 다소 높은 학력을 가졌고, 종교는 불교가 주로 그 외 기독교와 무교 가정이었다. 주택규모는 평

균보다 넓은 공동주택 혹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친척과 3개월에 1회 이상 교류하는 가정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로 보아 조사대상은 우리나라 중규모 도시에서 중류가정의 표본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2. 가정행사

1) 가정행사의 거행

조사대상 가정의 가정행사 거행과 거행장소에 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가정행사의 거행에 대해서 살펴보면 6종류의 행사 모두 평균 97%-47% 이상 거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35가지의 행사 중 전통적 행사에 해당하는 입춘, 춘·추분, 칠석행사는 13% 미만이 거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행사의 존속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할 수 있다. 기념일에서는 경로의 날이 7%대로 가장 낮게 거행되고 있었는데 이는 정부에서 늦게 만든 행사이기도 하나 어버이날을 88% 이상이 거행하고 있으며 이때 조부모의 경로도 겸하고 있어 이 행사의 활성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어버이날과 같은 날이면 함께 거행하겠다는 의견이 높아서 고려가 요망되었다. 위에서 열거한 거행율이 낮은 4가지의 행사를 제외하고 행사별 거행율의 평균<sup>9)</sup>을 비교하면 탄생일의 거행율이 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기념일(82.1%), 인생의례(72.0%)와 축하행사(72.0%), 전통적 행사(70.9%)로 70.2% 이상의 가정이 거행하고 있었다. 기타행사는 47.8%로 다소 낮았다. 즉 전반적으로는 탄생일을 가장 중시하는 풍조로 이 행사는 앞으로도 모든 가정의 필수적인 행사로 보였다. 그 다음은 기념일, 인생의례와 축하행사, 전통적 행사로 이 행사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계속 거행될 것으로 보였다. 기타 행사는 주로 서구에서 근대 및 현대에 도입된 행사들로 가정에 따라서 거행하는 집과 하지 않는 집이 나누어 질 전망이었으나 기독교의 증가와 생활의 서구화에 따라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① 전통적 행사

전통적 행사에 속하는 행사를 살펴보면 구정은 100%의 가정이 거행하고 있어 거행율이 가장 높았는데 신정을 거행한다는 응답도 60.9% 있어 흥미로

6) 1995년의 25세 이상 국민의 학력 구성비를 보면 남성의 경우 중졸 14.2%, 고졸 41.4%, 대졸 이상 26.6%이었으며 여성은 중졸 17.1%, 고졸 34.8%, 대졸 이상 13.1%이었다(통계청, 2000, p.123).

7) 2001년 4/4분기의 도시 근로자 가구(가구주 연령 50-54세)의 경상소득임

8) 진주시의 주택형태별 가구분포(2000년)를 보면 단독주택 46.4%, 아파트 47.8%, 연립 및 다세대 2%이었다. 주거공간은 경남지역의 5인 가족의 경우 가구당 29평 미만은 78.6%, 29-39평 미만은 14.3%, 39평 이상은 7.1%이었다(통계청, 2000).

9) 각 영역별 행사들을 합하여 평균을 구한 값임

운 결과를 얻었다. 즉 추석은 음력으로 지나나 설은  
 신정과 구정이 함께 높은 거행율을 보였는데 이는  
 새해의 시작에 해당하는 신정에 대한 선호도 높으나  
 최근 정부에서 전통 문화 찾기 등의 일환으로 구정

연휴를 주고 있으므로 이의 영향으로 양자가 다 거  
 행되고 있다고 사료되었다. 정부의 연휴 정책에 따  
 라 다소의 변동은 있겠으나 확실히 존속될 행사에  
 속하였다. 제사도 종교에 관계없이 거행율이 높았으

표 2. 가정행사의 거행유무와 거행장소

f(%)

구분	행사명	거행		거행장소				계
		합	안 함	집		외부		
				자기집	친척집	외부시설	종교시설	
전 통 적 행 사	신정	103(60.9)	66(39.1)	75(44.4)	24(14.2)	4( 2.4)		169(100)
	구정	169(100)	0 ( 0.0)	72(42.6)	95(56.2)	2( 1.2)		169(100)
	대보름	120(71.0)	49(29.0)	101(59.8)	10( 5.9)	5( 3.0)	4( 2.4)	169(100)
	입춘	21(12.4)	148(87.6)	18(10.7)		1( 0.6)	2( 1.2)	169(100)
	추분·춘분	14( 8.3)	156(91.7)	13( 7.7)		1( 0.6)		169(100)
	칠석	18(10.7)	151(89.3)	14( 8.3)			4( 2.4)	169(100)
	추석	159(94.1)	10( 5.9)	64(37.9)	95(56.2)			169(100)
	제야	62(36.7)	107(63.3)	48(28.4)	1( 0.6)	10( 5.9)	3( 1.8)	166(100)
	제사	144(85.2)	25(14.8)	86(50.9)	57(33.7)	1( 0.6)		169(100)
석가탄신일	82(48.5)	87(51.5)	7(4.1)	1(0.6)	5(3.0)	69(40.8)	169(100)	
인 생 의 례	백일잔치	94(73.4)	34(26.6)	70(54.7)	1( 0.8)	23(17.9)		128(100)
	돌잔치	105(84.0)	20(16.0)	54(43.2)	2( 1.6)	49(39.2)		125(100)
	성인의 날	46(27.2)	123(72.8)	9( 5.3)		37(21.9)		169(100)
	부부의 결혼기념일	94(55.6)	75(44.4)	64(37.9)		30(17.8)		169(100)
	부부의 환갑·고희	4(100.0)	0(0.0)	1(25.0)		3(75.0)		4(100)
탄 생 일	부모님 환갑·고희	100(91.7)	9( 8.3)	30(24.8)	22(18.2)	48(39.7)		109(100)
	아버지 생신	77(98.7)	1( 1.3)	39(50.0)	29(37.2)	9(11.5)		78(100)
	어머니 생신	104(99.0)	1( 1.0)	47(44.8)	45(42.8)	12(11.4)		105(100)
	남편 생일	152(99.3)	1( 0.7)	122(79.7)	10( 6.5)	20(13.1)		153(100)
	주부 생일	164(99.4)	1( 0.6)	127(77.0)	12( 7.3)	25(15.1)		165(100)
축 하 행 사	자녀 생일	150(88.8)	19(11.2)	123(72.8)	3( 1.8)	24(14.2)		165(100)
	자녀입학	96(56.8)	73(43.2)	19(11.2)	3( 1.8)	74(43.8)		169(100)
	자녀졸업	116(68.6)	53(31.4)	15( 8.9)		101(59.8)		169(100)
	자녀취직	65(80.3)	16(19.7)	22(27.1)		43(53.1)		81(100)
	승진	64(77.1)	19(22.9)	27(32.5)		37(44.6)		83(100)
	퇴직	36(81.8)	8(18.2)	11(25.0)		25(56.8)		44(100)
	상량식(신축 전)	37(52.8)	33(47.2)	28(40.0)		9(12.8)		70(100)
집들이(신축후, 이사)	103(86.6)	16(13.4)	99(83.2)		4( 3.4)		119(100)	
기 념 일	어린이날	79(76.0)	31(24.0)	22(21.1)		56(53.8)	1( 1.0)	104(100)
	어버이날	149(88.2)	20(11.8)	97(57.4)	24(14.2)	28(16.6)		169(100)
	경로의 날	13( 7.7)	156(92.3)	9( 5.3)	1( 0.6)	3( 1.8)		169(100)
기 타 행 사	발렌타인 데이	74(43.8)	95(56.2)	15( 8.9)		59(34.9)		169(100)
	화이트 데이	77(45.6)	92(54.4)	18(10.7)		59(34.9)		169(100)
	크리스마스	123(72.8)	46(27.2)	52(30.8)		45(26.6)	26(15.4)	169(100)
	부활절	49(29.0)	120(71.0)	9( 5.3)	1(0.6)	2( 1.2)	37(21.9)	169(100)

며, 일부 기독교 가정의 거행율이 낮았을 뿐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행사로 보였다<sup>10)</sup>. 대보름도 전통적인 행사로 정착하여 존속될 행사로 보였다. 석가탄신일은 48.5%로 종교와 결합된 행사로 앞으로의 존속 여부가 주목되었다.

② 인생의례

인생의례에 속하는 행사를 살펴보면 부부의 환갑, 고회(100%), 부모의 환갑, 고회(91.7%)는 91% 이상이 거행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행할 행사로 보이며, 돌, 백일도 각각 84.0%, 73.4%가 거행하고 있어 앞으로 계속 행할 행사로 보였다. 부부의 결혼기념일은 55.6%가 거행하고 있어 앞으로의 방향이 주목되며, 성인의 날은 27.2%가 거행하고 있어 다른 행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최근 지방단체를 중심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는 행사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였다.

③ 탄생일

탄생일에 속하는 행사를 살펴보면 자녀의 생일이 가장 낮아서 거행율이 88.8%이었으며, 그 나머지는 98% 이상으로 모두 확실히 계속 될 행사로 보였다.

④ 축하행사

축하행사에 속하는 행사를 살펴보면 집들이(86.6%)<sup>11)</sup>, 자녀취직(80.3%)이 80% 이상, 승진이 77.1%, 자녀 졸업이 68.6%로 확실히 계속될 것으로 보였으며, 자녀입학은 졸업보다 축하하는 비율이 낮아서 56.8%, 상량식도 집들이 보다 낮아서 52.8%가 거행하고 있었는데 이 두 행사는 앞으로의 행사여부가 주목되었다.

⑤ 기념일

기념일에 해당하는 행사를 살펴보면 어버이날은 88.2%, 어린이날은 76.0%가 거행하고 있었으며 경로의 날은 7.7%로 행사를 하는 가정이 매우 적으므로 어버이날 행사에 포함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⑥ 기타행사

기타행사에 속하는 행사를 살펴보면 크리스마스는 72.8%로 종교에 관계없이 거행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 확실하다고 보였으며, 화이트 데이 45.6%, 발렌타인 데이 43.8%로 그 귀추가 주목되었다. 부활절은 29.0%로 종교와 결합된 행사로 관련 종교 인구의 증가에 따라 변화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거의 모든 가정에서 꼭 거행하는 중요한 행사는 우리나라의 양대 명절인 구정과 추석, 그리고 탄생일과 환갑·고회행사이며, 가정행사의 거행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2) 가정행사의 거행장소

가정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따라 집·자기집, 친척집(큰댁, 부모님 댁 등)<sup>12)</sup>, 외부시설(식당, 뷔페, 호텔, 카페, 호프, 패스트푸드점, 공원, 야외, 여행지 등), 종교시설(사찰, 교회, 성당)로 나누어 서 각 행사별 거행장소를 <표 2>에 제시하였다.

① 전통적 행사

구정(98.8%), 추석((94.1%), 제사(84.6%), 대보름(65.7%), 신정(56.8%)은 주로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중 구정(56.2%)과 추석(56.2%)은 특히 친척집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았고, 다음은 제사(33.7%)가 친척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로 보아 신정과 대보름은 각 가정 단위 즉, 핵가족 단위의 행사로 보여지나, 구정, 추석, 제사는 친척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한 확대 가족적 행사로 여겨져서 우리나라의 주거는 전통적인 행사를 수행하는 중요한 장소로 주거 계획 시 종가 집이나 맏이 집 등은 이런 전통적 행사를 수용할 수 있게 공간의 융통성과 전용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한편 5% 미만의 적은 비율이지만 신정과 구정, 대보름을 외부시설인 호텔, 여행지에서 거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전통적인 행사가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의식의 변화를 보여 준 흥미로운 결과이었다.

② 인생의례

백일(55.5%)은 주인공이 어려서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때문인지 집에서 행사를 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돌(집44.8%, 외부39.2%), 부모님의 환갑·고회(집 43.0%, 외부39.7%)는 집과 외부시설의 이용이 비슷하였다.

부모님의 환갑·고회행사의 외부시설은 뷔페 식당

10) 교차분석 결과 불교가정의 90.8%, 천주교가정의 92.3%, 무교가정의 90.5%, 기독교 가정의 63.3%가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집들이는 김계동·이영호(1997)의 경남지역 조사에서도 80% 이상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집·자기집, 친척집-의 구분은 행사 참여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36.4%)이 가장 많았고, 호텔, 여행지 등도 있었는데 이러한 행사는 손님위주의 경우는 일시에 많은 사람을 수용할 공간과 대량의 음식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뷔페식당으로 하며 당사자 중심으로 할 경우는 호텔이나 여행에 금전을 투자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성인의 날은 (집5.3%, 외부21.9%) 외부시설에서 거행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부부의 결혼기념일은(집 37.9%, 외부17.8%) 집에서 행사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

③ 탄생일

탄생일의 거행 장소를 살펴보면 부모님은 87% 이상, 남편 86%, 주부 84%, 자녀 74%가 자기집에서 거행하고 있었다. 이 중 부모님 생신은 친척집에서 거행되는 비율도 37.2%-42.8% 있어서 '집'을 매개로 한 친척과의 교류 모임의 성격을 가진 가족적 행사가 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남편, 주부, 자녀 생일은 자기집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아서 핵가족 중심적 행사이었다. 한편으로는 모든 탄생일이 집밖에서도 11-15% 정도 거행되고 있었는데 부모와 부부의 경우는 주로 식당에서, 자녀의 경우는 카페, 패스트푸드점, 호프집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세대간에 탄생일 행사 장소에 차이가 있었고, 주부 생일의 사회화율이 다소 높아 가사노동자에 대한 배려도 엿보였다.

④ 축하행사

집들이는 83.2%가 자기집에서 하고 있었으며, 상량식도 자기집에서 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주택과 관련된 행사이므로 자신의 집이라는 영역성 확인을 위하여 자기집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녀졸업(외부 59.8%, 자기집8.9%), 퇴직(외부56.8%, 자기집25.0%), 자녀의 취직(외부 53.1%, 자기집27.1%), 승진(외부44.6%, 자기집 32.5%)은 외부시설에서 행해지는 경향이 높아서 사회화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었다.

⑤ 기념일

기념일의 거행 장소를 살펴보면 어버이날은 71.6%가 자기집에서 거행하는데 그 중 14.1%는 친척집에서 행하고 있었다. 어린이날은 53.8%가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 공원, 야외 등 외부시설에서의 행해져 사회화의 비율이 어른의 행사보다 높았다.

⑥ 기타행사

기타 행사인 발렌타인데이(34.9%)와 화이트데이(34.9%)는 외국에서 유입된 행사인 만큼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자기집의 3배 이상 높아서 사회화 경향이 보였다. 장소로는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카페, 호프집, 레스토랑 등 이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집(30.8%)과 외부시설(26.6%)에서 지내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며 교회(15.4%)에서 지내는 비율도 꽤 있어서 다양한 장소에서 거행되고 있었다. 부활절은 자기집(5.9%)보다 교회(21.9%)에서 지내는 비율이 높아서 종교적인 행사로 인식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가정행사의 거행 장소를 통하여 전통사회에서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모든 가정행사가 사회의 변화 및 가치관의 변화로 점차 외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돌잔치, 환갑·고회 행사, 자녀의 입학, 졸업, 취직, 승진, 퇴직 등의 축하행사, 어린이날,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는 식당 야외, 카페, 여행지 등 외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앞으로 점차 사회화될 행사로 보였다. 가정행사장소의 변화를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화를 대비한 시설의 개발이 요구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가정행사의 사회화 경향파악은 이러한 행사를 수행할 외부시설의 형태와 잠재적 수요를 예측하는데 유용하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3. 가정의 행사 공간 및 전통행사 공간

1) 가정의 행사 공간

가정행사가 자기집에서 이루어지는 가정만을 대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주거공간을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가정행사의 공간은 전반적으로 거실(마루)이나 안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거실의 사용 비율이 다소 더 높았다<sup>13)</sup>. 안방과 거실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집은 극히 적었다. 그 다음으로는 부엌

13) 전통행사는 거실 38.7%, 안방 59.7%, 인생의례는 거실 57.0% 안방39.5%, 탄생일은 거실 44.2%, 안방 49.8%, 축하행사는 거실 57.9%,안방38.4%, 기념일은 거실44.4%, 안방 51.0%, 기타행사는 거실 72.5%, 안방 27.6%로 가정행사는 거실과 안방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었다.

과 식당, 마당, 혹은 자녀 방이란 응답이 극히 일부 있었다.

행사별로 거실과 안방의 사용비율을 살펴보면(그림 1), 전통적 행사는 안방의 사용비율이 높았고, 탄생일과 기념일은 안방이 다소 높았다. 기타 행사는

거실의 사용율이 매우 높았고, 인생의례와 축하행사도 거실 사용율이 높았다. 즉, 거실에서는 인생의례, 축하행사, 기타 행사가, 안방에서는 전통행사, 탄생일, 기념일이 주로 거행되어 행사의 종류에 따라 행사를 거행하는 공간에서 차이를 보였다.

표 3. 가정행사의 공간 (집에서 거행하는 경우)

f(%)

구분	행사명	거실(마루)	안방	안방, 거실	자녀방	부엌, 식당	마당	집전체	계
전통적 행사	신정	22(29.3)	52(69.3)	1(1.4)					75(100)
	구정	21(29.2)	48(66.7)	1(1.3)				2(2.8)	72(100)
	대보름	42(41.6)	55(54.5)			2(2.0)	1(1.0)	1(1.0)	101(100)
	입춘	8(44.4)	10(55.6)						18(100)
	추분·춘분	6(46.2)	7(53.8)						13(100)
	칠석	5(35.7)	9(64.3)						14(100)
	추석	20(31.3)	40(62.5)	2(3.1)				2(3.1)	64(100)
	제야	24(50.0)	24(50.0)						48(100)
	제사	28(32.5)	57(66.3)		1(1.2)				86(100)
	석가탄신일	3(42.9)	4(57.1)						7(100)
인생의례	백일잔치	37(52.9)	32(45.7)	1(1.4)					70(100)
	돌잔치	29(53.7)	23(42.7)	1(1.8)			1(1.8)		54(100)
	성인의 날	5(55.6)	3(33.3)		1(11.1)				9(100)
	부부의 결혼기념일	32(50.0)	31(48.4)			1(1.6)			64(100)
	부부의 환갑·고희	1(100)							1(100)
	부모님의 환갑·고희	9(30.0)	20(66.7)				1(3.3)		30(100)
탄생일	아버지 생신	16(41.0)	21(53.8)			1(2.6)	1(2.6)		39(100)
	어머니 생일	19(40.5)	24(51.1)	1(2.1)		2(4.2)	1(1.2)		47(100)
	남편 생일	53(43.4)	63(51.7)			6(4.9)			122(100)
	주부 생일	52(40.9)	69(54.3)			6(4.8)			127(100)
	자녀 생일	68(55.3)	47(38.2)		1(0.8)	7(5.7)			123(100)
축하행사	자녀입학	7(26.0)	12(74.0)					19(100)	
	자녀졸업	10(52.6)	5(33.4)						15(100)
	자녀취직	15(68.2)	7(31.8)						22(100)
	승진	17(62.9)	10(37.1)						27(100)
	퇴직	9(81.8)	2(18.2)						11(100)
	상량식(주택신축전)	11(39.3)	14(50.0)				3(10.7)		28(100)
	집들이(주택신축후)	74(74.7)	24(24.2)					1(1.1)	99(200)
기념일	어린이날	12(54.5)	7(31.8)		3(13.6)				22(100)
	어버이날	44(45.4)	53(54.6)						97(100)
	경로의 날	3(33.3)	6(66.7)						9(100)
기타 행사	발렌타인 데이	12(80.0)	3(20.0)						15(100)
	화이트데이	14(77.7)	4(22.3)						18(100)
	크리스마스	34(65.4)	18(34.6)						52(100)
	부활절	6(66.7)	3(33.3)						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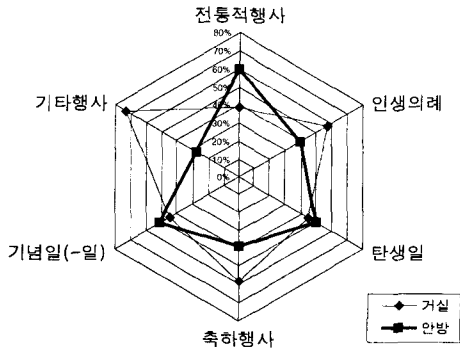


그림 1. 행사별 거실과 안방의 사용 비율

① 전통적 행사

전통적 행사에서 각 행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살펴보면 신정, 구정, 추석, 제사, 칠석은 안방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대보름, 입춘, 춘·추분, 제야는 가정에 따라서 안방에서 하거나 거실에서 행해지는 양 형태가 존재하고 있었다.

② 인생의례

인생의례는 성인의 날, 부부의 환갑 고회는 거실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부모님의 환갑·고회는 안방에서 주로 행해졌다. 백일, 돌, 부부의 결혼기념일 행사는 가정에 따라서 거실에서 혹은 안방에서 행해지는 형태가 존재하였다.

③ 탄생일

탄생일 행사를 살펴보면 자녀생일은 거실 쪽이 주부생일은 안방쪽이 다소 많은 경향을 보인 외엔 전반적으로 가정에 따라서 안방 혹은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양 형태가 존재하였다. 그 외에 부엌·식당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일부 있었는데 자녀나 주부, 남편의 경우이었다.

④ 축하행사

축하행사를 살펴보면 퇴직, 집들이, 자녀취직, 자녀졸업은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지배적이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주택의 거실은 안방보다 크기 때문에 비교적 인원수가 많은 모임은 거실이 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자녀입학은 안방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입학 축하는 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 저학년의 아동기에 행하기 때문으로 사료되었으며, 상량식은 안방 혹은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양 형태가 존재하였는데 이는 어느 쪽이든 공

간이 넓은 곳을 선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⑤ 기념일

기념일을 살펴보면 어린이날은 거실에서의 행사비율이 많았고, 경로의 날은 안방에서의 비율이 많았다. 어버이날은 안방과 거실 양 공간에서 이루어지나 안방 쪽이 다소 높았다.

⑥ 기타행사

기타 행사를 살펴보면 모든 행사가 주로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구에서 유입된 행사가 대부분이었던 만큼 이런 행사를 행하는 가정에서는 행사의 공간도 거실 쪽이 안방보다 즐겨 이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비 일상적인 가정 행사를 '집에서' 거행하는 경우 그 공간은 안방이나 거실이 주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일부 부엌·식당, 혹은 자녀방이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극히 일부로 앞으로는 모든 행사가 거실이나 안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으로 이를 감안한 공간 계획이 요구되었다.

또한 부엌·식당에서도 탄생일 행사가 적은 비율이나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외에 아주 적은 비율이었으나 마당을 행사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는 대보름, 돌잔치, 부모님 환갑·고회, 부모님 생신, 상량식, 집들이 행사이었는데 이는 전통사회에서 마당이 행사공간의 기능<sup>14)</sup>이 현재의 주거에도 이어져 온 결과라 볼 수 있다.

가정행사에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 안방과 거실은 행사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안방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거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안방 혹은 거실을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졌다.

안방의 사용 비율이 높은 행사는 신정, 구정, 추석, 제사, 칠석, 부모님의 환갑·고회, 부모님 생신, 부부의 생일, 어버이날 등 전통적 성격의 행사 혹은 부모세대나 부부에 관련된 행사이었다.

거실의 사용비율이 높은 행사는 자녀의 졸업, 취직, 승진, 퇴직, 집들이 등의 행사와 부활절 모임,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크리스마스 주로 축하나, 젊은 세대 관련 행사 혹은 서구에서 유입된 행사에 치중되어 있었다. 또한 안방과 거실의 사용 비율이 비슷한 행사는 대보름, 백일잔치, 돌잔치, 가족원의

14) 김기석(1996), 집이야기, 대원사, p.127.



탄생일, 어버이날로 나타났다.

안방과 거실의 두 공간을 동시에 사용하는 행사는 신정, 구정, 추석, 백일잔치, 돌잔치, 어머니 생신 등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의 경우이었다. 또한 집 전체를 행사장소로 사용한 경우는 구정, 대보름, 추석, 집들이 등의 행사로 친·인척이 많이 모일 경우 집의 전체 공간을 행사장소로 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집’에서의 가정행사의 중심공간은 안방과 거실(마루)로 나타났다. 이 두 공간은 행사의 성격에 따라 구분 사용되고 있었는데, 안방에서는 전통적 행사와 탄생일 등의 행사가 주로 이루어졌고, 세대별로는 부모, 부부세대와 관련된 행사를 위한 공간이었다. 한편, 거실에서는 축하행사 및 기타 행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였고 세대별로는 자녀세대와 관련된 행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대비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비교적 안방은 전통적이고 부모 세대적인 행사의 공간, 거실은 서양적이고 자녀 세대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볼 수 있었다.

#### 2) 전통행사의 공간

주거 내 가정행사를 지내는 공간의 유무 및 앞으로 가정행사를 지내고 싶은 공간과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자신의 주거에 가정행사를 거행하는 특정 공간이 있다는 응답이 94.1%(159가정)로 대부분의 가정이 가정행사를 거행하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정행사를 가장 많이 거행하는 공간은 안방과 거실의 양쪽 사용이 3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거실만 주로 사용한다가 24.3%, 안방만 주로 사용한다가 17.8%, 거실과 부엌·식당의 양 공간 사용이 12.4%, 안방과 부엌·식당의 양 공간 사용이 1.2%로 거실과 안방이 모든 가정에서 비 일상적인 가정행사의 공간임이 재확인되었다.

앞으로 비 일상적인 가정행사를 할 때 사용하기를 원하는 공간은 거실이 29.6%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공간규모가 넓어서’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공적공간이기 때문’이라는 등의 이유로 선호하였다. 또 어떤 방이라도 상관없다는 의견도 20.0%나 있었는데 대체로 ‘공간규모가 큰방이면’의 의견

이 지배적이며, ‘냉·난방이 잘되는 방이면’ 어떤 방이라도 좋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안방(5.9%)이 ‘전통적인 행사를 해 왔던 공간이므로 계속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다음 순위로 높았다. 이외 외부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의견도 2.4% 있었는데 ‘전통적인 행사시 여성에게 집중되는 가사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많은 손님의 수용이 가능하므로’, ‘장소 이용이 편리하므로’ 등의 이유로 외부시설(식당 등)을 선호하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앞으로 전통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선호되는 곳은 현재 전통행사를 주로 거행하는 안방과 거실로 일치하였다. 그러나 원하는 행사 공간의 조건은 규모가 넓은 공간이므로 일반적으로 주택 내에 가장 큰 공간인 거실이 행사를 위한 공간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거실은 가족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공동 공간으로 이런 행사에 쓰이더라도 가족원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나, 안방은 점차 침대가 놓이거나 부부 개인을 위한 사생활의 장으로써의 기능이 강화 될 것임으로(장상옥, 신경주, 1998) 행사를 위한 공동 공간화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아직 고 연령층은 공간에 대한 상하 개념이 존재하므로 세대교체가 되어가면서 급격히 공간 이용 패턴이 변화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 IV. 요약 및 결론

주택이란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 주택의 공간계획은 주택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활내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 중 비 일상적인 생활에 해당하는 가정행사에 중점을 둔 행사의 계속 여부와 행사장소의 파악을 시도하였다. 그 이유는 전통 사회에서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가정행사가 현대사회에서는 ‘외부’에서 거행되거나 혹은 없어져 가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가정행사는 입춘, 춘·추분, 칠석, 경로의 날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거행되고 있었다. 현재 거행되고 있는 행사는 탄생일의 거행율이 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기념일 82.1%, 인생의례와 축하행사가 72.0%,

전통적 행사 70.9%이었으며, 기타행사(서구유입행사)는 47.8%로 거행율이 다소 낮았다.

2) 각 행사의 거행정도를 살펴보면 구정, 부부환갑·고회가 100%, 부부, 부모님 생신이 98% 이상, 추석, 부모님 환갑·고회가 91% 이상, 자녀생일, 어버이날, 집들이, 제사가 85% 이상, 돌, 퇴직이 81% 이상, 승진, 어린이날, 백일, 크리스마스, 대보름이 71% 이상, 자녀졸업, 신정이 60% 이상의 가정에서 거행하고 있어 이들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자녀입학, 부부결혼기념일, 상량식이 52% 이상, 석가탄신일,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가 43% 이상의 가정에서 거행하고 있었다.

3) 가정행사의 거행 장소는 집, 외부시설, 종교시설로 집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행사는 구정, 추석, 제사, 대보름, 신정, 백일, 부모님생신, 부부생일, 자녀생일, 집들이, 어버이날 등으로 전통행사와 인생의례, 탄생일 등의 행사이었다.

집에서 행사가 이루어질 경우의 공간은 거실(마루)과 안방이었으며, 거실에서는 인생의례, 축하행사, 기타 행사가, 안방에서는 전통행사, 탄생일, 기념일이 주로 거행되어 행사의 종류에 따라 행사 공간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인 행사를 보면 안방에서는 신정, 구정, 추석, 제사, 칠석, 부모님의 환갑·고회, 부모님 생신, 부부 생일, 어버이날 등 전통적 성격 혹은 부모세대나 부부에 관련된 행사인 반면 거실에서는 자녀의 졸업, 취직, 승진, 퇴직, 집들이 등의 행사와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크리스마스로 주로 축하나, 젊은 세대 관련 행사 혹은 서구에서 유입된 행사에 치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거실과 안방은 이러한 행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이 배려되어야 한다.

4) 사회화 된 행사는 자녀졸업축하, 퇴직축하, 어린이날, 취직축하, 승진축하, 석가탄신일, 발렌타인데이, 성인의 날로 집보다 외부에서의 거행 비율이 높았다. 사회화 과정으로 이해된 행사는 돌, 부모님 환갑·회갑, 크리스마스, 부부의 결혼기념일 등으로 집과 외부시설에서의 거행비율이 비슷하여 앞으로의 사회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가정행

사는 집보다 외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외부 시설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5) 가정행사 중 전통행사를 위한 특정 공간은 대부분(94.1%)의 가정에 있었으며 안방과 거실을 함께 사용하는 가정이 가장 많았는데, 이 공간에 대한 요구를 감안하면 가정행사의 공간은 규모가 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며, 냉난방 구비에 중점을 둔 공간계획이 요구되었다.

종합하면 중도시 가정의 경우 많은 가정행사가 앞으로도 집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집안에 이러한 행사를 위한 공간이 배려된 주택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이 경우 바람직한 공간계획에 대한 심층 연구가 요망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가정행사가 사회화되어가는 실정이므로 사회측면에서는 이러한 행사 수용을 위한 공간 마련대지는 사회시설의 개발이 요망되었다. 저소득층의 경우는 각 구에 있는 사회복지관 속에 이런 공간을 배려해 볼 수 있겠고, 중류이상 가정을 대상으로는 파티를 겸하는 차별화된 레스토랑 등에 대한 계획 방향과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요망되었다. 교육 측면에서는 가정행사 사회화에 따른 장·단점, 이용시 가능시설 점검 및 안내 등의 방향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교육이 요망되었다.

## 참 고 문 헌

1. 통계청(1999), 한국통계연감, 제46호.
2. 김계동, 이영호(1998), 현대주거에서의 의례관별 의례행태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5), pp.83-92.
3. 김기석(1996), 집이야기, 대원사, p. 127.
4. 윤재웅, 이미혜(2000), 도시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안방에 대한 인지성향과 공간사용방식, 한국주거학회 11(3), pp. 65-73.
5. 장상욱, 신경주(1998) 아파트 거주자의 기거양식과 그 만족도 및 전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4권 1호, pp. 39-50.
6. (주)지식발전소(200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7. 허성미, 한재숙(1993), 세시풍속에 대한 여성의 인식 및 가사작업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1권 3호, pp.15-27.
8. 宮崎祐子(1993),日本と韓國の都市住宅における空間構成に関する研究-行事の行われ方を中心に-,修士論文.